

국제석유시장의 변화와 한국석유산업의 진로

1. 변화하는 국제시장 질서

항상 시장은 역동적이고,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격(price)이라는 중간매개체의 역할에 따라 때론 뜨겁고 때로는 차가운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누군가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듯이 1973년 1차 석유파동이 있는 지 7년만에 다시 2차 석유파동이 찾아와 우리 인류에게 공포와 경악을 주었다. 그리하여 다시 1990년에는 소위 걸프전으로 인하여 다시금 3차 위기(?)를 맞을 뻔하다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새로운 21세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천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국제석유환경의 변화를 생각해보고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의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계덕남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장〉

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산유국들은 제3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쿠웨이트와 이라크가 생산하던 약 700만b/d의 공급 물량의 부족분을 증산을 통하여 메꾸어 줌으로써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소비국에 협조하여 세계 경제 파국을 모면하게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라크의 군사적, 정치적 팽창이 대산유국이 밀집하고 있는 페르시아만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이해와 사우디 등 인접하고 있는 대산유국의 경제심과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 이후 86년 세계시장은 공급과잉 현상이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OPEC의 생산량 확대에도 일부 원인이 있기는 하나, 북해유전 및 멕시코 등 비OPEC의 생산호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시장점유율 증대와 기존 시장 확보를 위한 OPEC와 비OPEC간의 치열한 증산경쟁이 결국 공급과잉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1) 지난 10년의 변화와 특징

지난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소위 걸프전은 제 3차 석유위기를 불러 올 뻔한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국제석유사정은 옛날과 같지 아니하였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하루 250만배럴의 석유를 즉각 방출하였으며 여기에서 사우디 등 산유국들도 증산에 들어감으로써 최고 \$42/B까지 가는 석유가격을 단기간 내에 평온을 되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때 IEA의 비축석유는 국제적 물량부족과 불안을 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

생산이 바로 판매와 연결되어 생산만 하면 판매되어 바로 수입이 되는 석유 생산 및 거래의 일련의 과정이 중간에 비축유라는 sponge를 거침으로 해서 공급감소나 중단과 같은 불안현상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기대감을 주는 안전망 구실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석유시장에서 안전판은 상품학적 성격에 따라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감소보다는 보유재고의 규모가 보다 안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일반적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재고 변화는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여줄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전략비축원유(SPR)나 휘발유 재고수준은 뉴욕 선물시장이나 현물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이르러 석유라는 상품이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선물 및 현물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됨으로 해서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투기자금의 유입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석유가격도 점차 생산자 소비자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시장이 형성되는 시대(OPEC → 메이저)에서 NYMEX와 같은 수평적이고 투명한 시장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가격메커니즘도 선물시장의 표준화가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무릇 모든 시장은 시장메커니즘이 보다 투명해지고 시장정보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명하게 공유될 때라야 건전한 활동이 가능해지는 법이다.

한편, 석유시장은 80년 2차 석유파동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카르텔 시장화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70-80년대 초까지를 생산자 카르텔시대(OPEC시대)라고 한다면 이때의 시장의 지배는 단연 OPEC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자 시장이었다. 그러나, 1998년까지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공급과잉으로 구매자 시장으로 변모하여 86년에는 석유가격이 10불 이하로 떨어지는 사태까지 갔다.

(2) OPEC의 신질서

오늘날에 와서는 OPEC는 감산과 증산을 반복하면서 시장조절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다. 1998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감산을 실시했는데 그 규모가 430만b/d에 달했다. 상기 감산 규모는 OPEC 전체생산량의 15% 가량으로 당시 시장에서 유가를 10불선에서 18불선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OPEC가 다시 시장장악력을 회복시키는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물론 재정수입도 그만큼 늘어나 OPEC는 그들이 단결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엄청나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재차 깨닫게 되었다. 다시 2000년에는 3차에 걸쳐 370만b/d의 증산을 실행하고 늘어나는 석유수요에 대처하면서도 석유가격을 28불대로 끌어올렸다. 이는 항상 수요를 밀도는 물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을 긴장시켰으며 수요보다 적은 양의 공급과 늦은 증산결정으로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시 2차에 걸쳐 250만b/d를 감산을 결의하여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있다.

현재의 가격은 대체로 23-24불 선에서 변동하고 있어 상당히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의 가격수준은 작년보다는 평균치로 보아 5불 정도 낮은 가격이나 재작년보다는 6불 정도 높은 수준으로 OPEC의 재정수입 면에서는 큰 불만을 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으로 OPEC가 추구하는 목표유가인 25불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만한 가격으로 해석되어진다.

한편, 생산자(OPEC) 입장에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적정수준대의 유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의 개발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석유개발활동을 진작시킴으로써 석유의 수명을 보다 길게 연장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또한, 적정수준대의 유가는 OECD를 비롯한 소비국 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될수 있다.

이렇게 보건데, 국제석유시장은 생산자(OPEC)와 소비자(OECD 등)간에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는 가운데 점차 시장원리가 확대되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기능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 석유라는 상품의 가격 향방은 경제성장과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요소(Fundamentals)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국제금융의 흐름과 시장충격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2. 국제시장에서의 우리의 위치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위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 속의 한국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지면관계로 정치, 경제, 사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소를 감안하기에는 능력과 시간이 부족하나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부터 더듬어 보기로 하자.

먼저 우리나라의 석유시장 규모를 보면 196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강력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세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석유량은 하루 200만배럴을 넘어 서면서 미국, 일본, 독일 다음의 세계 4위를 차지하는 위치에 있다. 석유소비량에 있어서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석유시장(구매자, 소비자)의 강자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간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주도하여 에너지빈곤국인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왜 하필이면 석유소비만을 촉진하여 석유소비강국(?)

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석유가 경제성, 편의성, 다용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석탄, 가스, 원자력 등 타 에너지원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반증하여 주는 결과라고 해석되어 진다. 그리고 어느 한 산업이 발전하는데는 자연조건과 경제조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인 만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나, 항만, 경제사회적 조건은 석유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 알맞는 토양과 기후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정제규모 역시 미국, 구소련방,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제5위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정제는 원유를 증류하는 비교적 간단한 공정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에서 파생되는 화학공업은 지금의 경제활동에서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공업은 아시아 굴지의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수출산업으로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석유산업의 특성으로 볼 때 cargo의 성격이 부피(bulk)로서 전용선과 하역시설이 필요하므로 해서 그 만큼 물류의 전문성과 수송거리의 경제성이 필요한 부문이다.

정유공장의 규모에 있어서도 SK(울산), LG칼텍스 정유(여수)의 공장은 각각 81만배럴, 60만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세계 2위와 3위의 대단위시설이다. 그리고 S-Oil 도 세계 랭킹 7위권에 들어가는 규모로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scale를 가지고 있다. 이 역시 정유산업이 고도의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는데 메리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계생산비가 체감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국내 정유사별 상압정제능력 현황

(단위:천b/d)

구분	SK	LG	인천	S-Oil	현대	계
상압정제	810	600	275	443	310	2,438

* 주 : 2000.12월말 기준

이러한 대단위 공장들은 중미의 바하마서인도제도, 아시아의 싱가포르, 유럽의 ARA(암스텔담, 로텔담, 안티워프등)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든 규모다.

이들 지역들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에 근접하고 있어 생산여력을 인접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여력도 이제는 중국, 일본 등의 수요에 상당량 충당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원유를 생산하는 석유개발산업이 아직도 발아기에 있어 소위 말하는 상류부문(upstream)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기술, 자본, 모험정신이 여의치 못하고 그간의 경제정책이 수출 드라이브와 중화학 위주로 전개되어 진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정부는 한반도와 주변 대륙붕에서 경제성 있는 석유를 찾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석유개발산업을 한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는데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3.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석유산업과 국제석유시장을 주마간산 격으로 훑어보았다. 많은 시사점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 다분히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정유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먼저 세계로 시야를 넓혀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자연적 입지로 볼 때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portal site에 있다. 다행히도 입지적 여건이 대형 소비시장인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물류의 center 역할을 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만과 공장의 대단위성은 생산비와 물류비를 절감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생산경쟁

력은 장치산업의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싱가포르보다 우위에 있다. 물류 cost나 시설 면에 있어서도 일본, 중국의 소비패턴 부족(gap)을 계절적으로나 품질 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적으로 정유공정은 원로나 공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정비율의 제품수율을 가져오기 때문에 소비유종과 생산유종이 100% 일치하기 어렵다. 이는 또한 계절적 변화와 지역의 특성, 산업의 발달정도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석유는 우리가 6-70년대에 경험한 바와 같이 편의성과 경제성 면에서 가장 알맞는 에너지원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정유산업도 이렇게 넓어지는 시장에 알맞는 판매(수출)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잉여능력(약 20%)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국내시장에서 많은 수송 cost를 부담하는 출혈경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시대는 적어도 정유산업에 있어서는 보다 밝은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만월의 상태에 있으며, 아시아는 아직도 반달의 상태로서 10년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중국과 같이 연간 약 10%에 육박하는 놀라운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아·태평양 석유수요

(단위 : 천b/d)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총 수요	18,440	18,346	19,069
- 중국	3,595	3,703	3,957

* 자료 : FACTS

지금의 투자는 분명히 미래의 열매가 달고 그 모양도 아름다울 것이다. 우리의 소비규모가 세계 톱10에 든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위치가 구매와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도 그 만큼 균형되고 성숙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시대에 이르른 것이다.

4. 리스크 경영과 유리창 경영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유수입액은 약 200억불에 이르고 있다. 이는 부존량 부족으로 전량 해외의존이라는 면에서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석유부분의 외환소요는 월 평균으로 16억 불로서 심각하게 생각하여할 시점에 왔다. 엇그저께 우리는 외환부족으로 IMF 관리를 받음으로서 국제 금융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외환 리스크(Risk)의 관리가 글로벌 경영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시장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환 리스크 회피노력을 경주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오늘의 국제석유시장은 뉴욕시장에서 좌우되고 금융, 외환, 주식도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바야흐로 Risk Hedging이 생산과 판매를 앞서가는 경영기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현재와 미래시장의 예측은 적극적인 연구와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의 기업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에 따라 기업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측정되고 평가되어 투자자로부터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때가 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나 국내시장에서 기업의 정보를 거짓없이 공개함으로써만이 공정한 평가를 얻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지금 얼마나 되고 내일은 또 얼마나 더 나아질 것인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한 유리창에 게시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넓게 마음을 여는 유리창의 석유산업을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

경 제 상 식

국민총소득은(GNI)은 한 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이다. 여기에는 그 나라 국민이 국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포함된다.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제외된다. 이러한 점에서 내외국민 불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하는 국내총생산(GDP)과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국내총생산은 생산활동이 일어난 장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반면 국민총소득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국민총소득은 명목과 실질지표로 계산될 수 있다. 명목 국민총소득은 앞에서 설명한대로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한다. 즉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국민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인 국외수취요소소득을 더하고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인 국외지급 요소소득을 빼면 된다. 따라서 명목 국민총생산은 그 동안 써오던 명목 국민총생산(GNP)과 같은 개념이 된다.